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김영수
주필	김영수
편집장	김영수
발행처	외대신문사 8562-7128, 961-4151
외대학보	8561-4152, 961-4183(FAX)
학생기자실	8553-6574, 0335-30-1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향신리 신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26호 1994 4월 4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 급인가

1

안병만 자기충장 내정자 인터뷰



지난 11월 27일(토) 교수협의회
의 자기충장 후보자 선출투표에서
조규철교수와 함께 2인의 후보로 선
출됐던 안병만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은 지난 2월 18일(금) 열린 재단이
사회에서 자기 충장으로 선임됐다.
본보에서는 지난 2월 23일(수) 유성
관광호텔에서 열린 교수간담회 자리
를 빌어 안병만 자기 충장 내정자
를 만나, 외대발전을 위한 원안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면담자주>

—외대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의
견은? 특화발전 예가도 많으신데.
=공약에 제시했듯이 서울은 외
국어, 사회과학, 대학원 중심으로
유일한 외국어,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를 특화 발전시킨다
는 원칙이다.

—캠퍼스별 독자적 특화발전 내
용이 아닌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
각은?
=내가 말하는 특화발전은 캠퍼
스별 특화발전이 아닌 어문학과 특
화발전만을 예기한 것이다. 어문학과
트레싱스라는 공약부분에 제시했듯
이 외대는 외국어를 살려야 한다.
외국어가 우리나라에서 지도적 위
지에 서 있지 않아 안타깝다. 어문
계열이 살아야 비언어 계열도 살릴
수 있다.

—공약에는 장기 발전계획이 없
다. 새을 계획은 있으신가?
=장기계획은 방향성이지 핵심이
다. 우리는 5년이후로 무시하기 할
된다. 방향성이 상실되서도 안된다고
이나 선불리 설정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방향성 설정을 위해 21세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 학생들과 합의된 '외대발전위원
회'도 기동시킬 계획이다.

—지난 83년 9월에 발표하기로
한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안 세부
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른 집단의 충돌 때문
이다. 또한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나
유동성을 지니고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대가 교육시장 개방을 극복하
고 외국화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
는 지역화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
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역화 해안한다. 지역화 대학
원 시설을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도
받아낼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 개선위원회를 학
생들과 함께 단대, 파벌로 설치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등록금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예산안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등록금은 학교재정의 주축이
다. 재단은 수익이 없다. 성사 있다
해도 한국사회의 시학에대한 기여
가쳐 속상할 내용지도 않는다. 충구
는 정부의 지원과 외부의 지원이다.
나는 충구로서 이를 적극 유치할
것이다. 자신있다.

등록금 조정을 학생들과 함께 한
다는 것은 부처답하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자각동
이전 요구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자각동 이전계획이 세워지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
다. 첫째, 그린벨트가 풀린다. 둘
째, 자각동이 캠퍼스 부지로 적합한
가 셋째, 꼭 가야만 하는 당위성이
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88년 한국생산성 본부의 학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제정
페르소인 용인캠퍼스가 서울캠퍼스
에 대한 충구성이 어느 대학보다도
강하다고 나와있다. 용인캠퍼스의 중
점화 원상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부총장 권한강화,
예산상 재정의 독립권한의 독립, 교수
직권제도의 독립재산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경쟁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
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일교수제는
지금 힘들다. 어느교수가 용인에만
있을라고 하겠는가.

—서울대는 학부중심의 체제를
갖추었다.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본
교 단대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동구이대의 단대본리 요구
또한 7년간 계속해 왔다.
=현재 단대라는 매우 비현실적
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단대개편위
원회를 꼭 구성해서 성과를 거둬보
자.

—개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이다. '외대인의 날'을 준비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장 필요한 거요적 행사다.
학교와 동문들 그리고 학생들도 함
께 해서 대학원의 장을 마련해 보
자.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

“재단은 수익이 없다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할 터”



백만학도 총 투표 보고회
수입개방 저지 교육재정 확
위한 애국 외대 결의
애국의 이름으로 페트리엇를 불사른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31일(목) 총투표 개표 보고 및 '민족자주권 수호와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사진은 모형 페트리엇 미사일과 성조기의 모습. <사진부>

한총련 주최 '국회비준 모의투표'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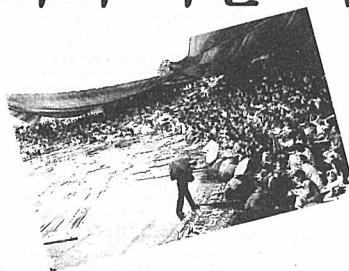
전국 투표자중 92%가 '비준반대'

<4.2(토) 24시 취합>

지역 (1)는 투표한 학교수	투표율	반대율	지역 (1)는 투표한 학교수	투표율	반대율
서울권(25)	40.5%	80.4%	전북권(13)	50.78%	95.18%
경인권(15)	57.1%	93.2%	부산권(5)		91.1%
남부권(19)	65.1%	95.68%	충청권(12)	41.8%	94.5%
강릉권(6)	42.4%	87.3%	제주권(4)	63.6%	88.4%
대중권(10)	38.04%	91.5%	계(134)	53.87%	92.84%

제28대 총학생회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

다시 벅찬 '힘몰이의 날'이 다가옵니다



1992년.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우리는 정기학생총회를 치렀습니다.
웃음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일사단의 온기로
결코 춥지 않았습니다.



1993년.

힘겨운 93년.
학교측에 예산상 공개를 요구하고
민주총정 선출을 염원하던 그시절,
고달픈지만 모두 '웃음'을 보였습니다.

?

1994년.

이날은 지난 등록금 투쟁을 함께 총화하고
상반기 외대인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전>

첫째, 등록금 투쟁 상황 총화
둘째, 94년 학자구조
3. 중장기 계획안 수립
4. 외대인의 날
세째, 수입개방저지 투쟁에 관하여
네째, 1학기 중심사업 보고
다섯째, 총학생회 예산안 보고

일시: 4월 13일(수)
장소: 노천 극장

제28대 총학생회

개교 40주년 기념호 제작 관계로
다음호는 4월18일에 발행합니다.

사설

대통령 전철을 밟지 말아야

이제 언론이 지나면 새총장이 취임한다. 개로 40주년을 맞아 취임식에 더욱 뜻깊은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속에 탄생했듯이 새총장 취임 역시 하루 모든 구성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실망'으로 전한 적이 많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는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 개발을 잘 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러웠던 김대중은 이제 "이렇 수 없다"는 자세로 완강하고 있다.

원칙과 마다민족의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새총장은 부인할 때 공약을 "개발", "발전", "회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발표했다. 그러나 공생적인 기대가 현실되고 있지 않다. 새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을 때면

이런 우려가 반복된다. 드는 이유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와는 다른, 교육에 대한 책임이 대우하지 못 한 면이 있다. 선거에 임하고 있음은 추격의 의미로 받아들여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책임은 대우하지 않은 것이다"로 시작하는 총론에 있기 보다는 공익의 지론에 있다.

특히 '개발'부분에 있는 '예-건설을 전면 공개해 왔다'라는 새총장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지가 전적으로 있었더라면 이번 총선거를 조선 피정에서 비롯 한 총론은 아니지만 총장 내각으로서 책임은 지게 되어 있어야 했다. 이는 공익 부분으로 '회복'에서 강조하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을 구성원으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구조" 수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정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이 발생했다. 아니 지금도 하나 둘은 구성원의 화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해군해안군 관계가 산악해안이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진정한 '평화대학'으로의 도약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청년이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서 무릎 꿇었다. "이미 협상은 끝났다. 협상은 절대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치던 김영삼정부는 이명박정부를 거두어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수임개발을 약속하였으나 마침내 미국의 요구에는 단번에 간과 할 개가 나 내주듯 추가개발을 허용 한 것이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미국의 추가개발요구에 농민들과 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은 미국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자주적외교와 민족이익을 우선하는 협상태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를 보면 대내외에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한 용의의견을 하는 것인데, 시대주위에 대한 외교를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조차 힘들다.

67년 6월항쟁때 확연한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전적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미국이라는 강대국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중으로 청년학생이 타야 한다. 원세재대 광주학생회가 4.19이며, 5.18항쟁, 그리고 6월항쟁에 이르는 역사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맨 앞에서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다. 민족이 '저는나 죽느냐'하는 순간임에 있어서는 이다.

4월이다. 한강 모래나 준비로 바쁜 농촌이 허허를 기 그지없다. 이 모두가 수임개발으로 인해 농민들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신보다 조종하라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심정은 비통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바로 청년이 해야 한다. 죽어가 는 농촌의 희망을 주고 활기찬 민족경제의 발전을 청년들의 민족애로부터 찾아야 한다.

흡산의 소리

원칙과 마다민족의 심어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시다.
전서민 선, 원세재는 실망하는 외대원들의 심어있는 목소리를 아예 듣고 싶습시다.
원세재 2-7대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본보 학생기자신문 가지고 오십시오.
오, 채현민 원세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왕산 감전사고를 보고

어두운 교내 환경이 문제

요즘 왕산의 난색은 정말 왕산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원하

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 겨우내 유서로 있던 학생

들이 한방 두방 산에서 나와 방수방이나 잔다에서 애기하고

수업을 하는 모습이 한없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밝

한 모습도 약간씩, 해가 지면 학생들은 한방 한방 학교를 떠

나고 학교는 다시 삭막해진다. 게다가 밤이 되면 가로등이 켜

닫이 꺼져있는 학교 교정의 모습은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 삭

막한 학교의 분위기를 더욱 슬

프하게 만든다. 외대인이라면 한밤중 경행할

것으로, 캠퍼스 교정을 지나 캠퍼스의 넓고와 함께 불편함

단적으로 밤 8시부터 되면 학생

들과 도시락을 이어주는 존재

를 내려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교

의 교수를 해왔으므로 생각된다. 또한 어문학과 인문사

과 건물에서 밤늦게 혼자 걸어

나와 본 학생들의 경우 역시 가로등이 부족함으로 정신적

육체의 피해를 받던 것이었다. 버림받은 우리 한 명의 동료

학우를 감전사고에 의해 잃어 버렸다. 이 감전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였다고 한다. 확실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감전사고

건으로 볼 때, 어두운 교내 환경도 이 사건발생에 영향을 줬

다고 생각된다. 정말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교수는 책임이론 학생이론

학생 발원지론 일리있다고 시

각이 되면 모종의 학교를 짚

지나간다. 과연 책임이론이 연구

하고 탐구하는 진정한 모습의 대

태와 모습인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마음놓고 제대로 한 수 있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떤 환경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

으면서 무엇으로 요구할 수 있

겠는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불행한 우리 친구들만 고생하

고 불운까지 닥치는 것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사회 > >

□625호 흡산의 소리를 듣고

도서관 메뚜기를 살려야

요즘 대중 실업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뚜기들

을 살고 있다. 도서관이

사실상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은 지식의 여유가 없고

어린 때, 지난 주 외대도서관

"흡산의 소리"에 실린 "도서관

이라는 한문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라는 내용의 한

학생의 글을 보며 서울 용인 총

학생회에 제안을 하고 있다.

한미대 메뚜기를 전적으로 살

리는 캠페인을 했으면 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메뚜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를 바꾸는 동안에는 조금 번

들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사

용할 수 있도록 메뚜기를 나눠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

작인 참여바랍니다"라는 내용

의 스티커를 도서관 각 자리

마 도서관 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사회 > >

그 돈가짜 외대에 건물하나 더 지어주는 것이 페트리이트(애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쓸모도 없는

페트리이트를 오히려 바위

30년에 잊어버렸다.

CH 말(馬)...

보십시오. 페트리이트 안에

가져오기 전수할 때 우리 불

리요. 페트리이트...

모든 이시점 센터...

미국 아닌 외국 미사일...

개대, 94...

과연 동등 1호를 맞출 수

있을까?

MIC...

우째 이런 일... D. 94...

그 미사일로 정중이나 만

들지.

강동 주인...

우리가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배치할런데 해. 나중에

미국과 불행해 버

CS. 91...

우리 미사일이 내 돈으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트레이드 미사일 구입한

□태대학의 발전안을 보며

학교는 중·장기 계획안 마련하라

요즘 신문은 해외로 대학

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은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대

정인 자료와 조치가 있고 서울

대의 학과제 폐지와 학부제

제도의 개편, 연세대의 인제

제도의 개편과 서울대 북쪽

의 대규모 연세대 캠퍼스

들이 있다. 그 외에 고대, 한

대 등이 중장기발전계획, 21세

기 마스터 플랜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외대를 살펴

자, 학생들이 93년 그렇게

있었던 중장기발전계획과 이

년 총학생회가 조심히만 제

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정

당성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와 재단은 간

접한 학교와 재단은 요지부

이다. 기약해서 만들어낸 것

외대발전 5개년 계획이

다. 이대로만 안되면 이

년 계획이 미미하게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다.

학부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

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외대를 다지고 있는 이

다. 이것은 차기총장

발전만 교수(아직까지 재

단위만 발전, 교수들 2

후로 1인 선임까지

하지 않았다. 공익에도

외대가 발전하는 길

다만 우리 학교는 어떤가.

외대하기 전, 캠퍼스의

중 이젠, 동쪽쪽 부

교육환경 개선, 원

전국 중 시교로 학

가 고조되었는데

는, 그런 분위기

하더라도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다만 우리 학교는 어떤가.

외대하기 전, 캠퍼스의

중 이젠, 동쪽쪽 부

교육환경 개선, 원

전국 중 시교로 학

가 고조되었는데

는, 그런 분위기

하더라도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중, 캠퍼스의

다만 우리 학교는 어떤가.

외대하기 전, 캠퍼스의

중 이젠, 동쪽쪽 부

교육환경 개선, 원

전국 중 시교로 학

가 고조되었는데

UR, 미국 패권유지 돌파구로 출발



UR 농산물 개발은 미국 곡물메이커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사진은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다국적 곡물회사 소유의 곡물저장소. <사진: 시사저널>

주지하듯이 UR은 제8차 라운드(다자간협상)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추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의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UR의 배경과 본질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UR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UR의 배경, 진행과정 및 결과, 그리고 파급효과 등의 측면을 분석해 보면 UR의 본질적 측면 및 우리의 대응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UR의 등장배경-미국의 패권주의 유지 노력

가트와 UR의 배경 및 본질적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2차대전 이후 변화되는 국제정세이며, 이것을 주도해 온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중심적으로 분석

되며, 막대한 금보유를 바탕으로 최대의 채권국으로 군림하였다. 세계 경제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떠받친 것은 IMF-IBRD제(브레튼우즈 체제)와 가트라는 양대축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와 세계화폐(금)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화폐·통화도를 성립시켰으며, 가트는 기존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같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1973년 닉슨의 금폐환지불 정지 선언에 따른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흔들리게 되고 상대적 지위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EC와 일본의 급속한 생산력발전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해빙에 따라 과도성장 피도부지 상태에서 빠른 군사산업의 생산설비투자, 실험력의 증대, 노동생산

률에 의해 연평균 1천억달러의 빛을 지는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몰락하였다. 이같은 미국경제의 침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경제의 위기가기도 하였다. 군사산업 부문의 과도한 비중,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제조업경쟁력의 저하 등 미국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밀방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는 동시에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EC, 일본 등이 취하고 있는 자국상품에 대한 각종 시장개방 압박을 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시장개방을 주 목적으로 하였던 가트는 설립당시부터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경적인 원인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선언하는데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C와 일본을 비롯한 다국적 시장개방을 설치하였던 것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구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G5, G7을 통해 선진자본주의 제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함께, 일본, 대만 등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압박을 행사하는 것 등을 그걸을 다기 위한 전 단계였다. 1986년 미국에 의해 제기된 UR은 선진자본주의 제국간 이해관계 조정과 쌍무적 시장개방압박을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UR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G5, G7, 쌍무적 시장개방압박 등과 같은 부속적 시도단계를 거쳐 시장개방 압박을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구를 만들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UR이 이전까지의 가트 라운드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측면이다.

UR의 본질 - 선진 자본주의의 국간 이해조정

UR은 그 출발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구조적인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냉전체제 해소 이후 미국 패권주의의 약화 및 상대적 지위 하락, EC,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제국의 상대적 지위 상승의 반영이기도 하다.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힘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제는 EC,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제국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함을 통째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UR의 가장 핵심적 측면은 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구 즉 세계 무역기구(WTO)와 창설과 각종 시장개방압박의 철폐에 있다. 가트가 규율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은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정도와 산업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표현되는 다국적 독점자본은 상품, 자본, 기술의 흐름에 따라가는 각종 시장개방 압박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선진자본주의제국 내부의 비독점자본과 경쟁력 저하의 산업자본들은 자신들에 대한 시장보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선진자본주의제국의 자본주의 발전정도와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 자본 그리고 기술시장의 시장개방압박 철폐를 둘러싸고 이들 국가간 이해관계 역시 상이하고 고도의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농산물, 자동차, 항공우주, 각종 서비스, 문화산업 등 산업별로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번 UR협상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진자본주의제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선진자본주의제국간 이해관계 조정은 이들 각국 내부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다국적기업과 경쟁

미국 및 선진 자본주의국, 우선

협의 통해 합의사항 도출하고

이를 제3세계 국가에 강요

한계를 넘어 국수적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WTO의 창설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 동시에 여러의 선진자본주의제국의 이해관계에도 일치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제국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WTO를 주도하며 세계경제적 지위를 구축할 것이다. 무역과 관련한 주요사항 즉 관세의 인하 및 철폐,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수출보조금의 축소 내지 철폐, 수입제한의 각종 절차적 제약 철폐 등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선진자본주의제국은 우선적으로 자신들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제3세계국가에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번 UR협상의 진행과정이 철저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선진자본주의제국간의 쌍무협상에 의해 주요사항이 결정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국가에 이를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UR과 WTO에서 선진자본주의제

국이 강한 산업자본은 시장개방철폐에 노동력으로 대처하면서 이윤확대를 추구하지만 비독점자본은 경쟁력을 가진 산업자본은 시장개방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혹은 산업구조조정, 흡수되어질 것이다. 다국적 산업구조조정은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정도와 산업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 기술구조의 변화 등이 전개될 것이다.

UR의 본질 - 제3세계로의 고통전가

UR이 본질적으로 한방으로는 선진자본주의제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다국적기업 및 초국적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및 경쟁력 저하 산업자본간의 경쟁의 격화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선진자본주의제국의 제3세계국가에 대한 경제침탈 강화 및 제3세계국가에 있어서 경제의 종속·불균형의 심화를 의미한다.

미국, EC,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제국은 선진자본주의제국과 독점자본이 UR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불균형, 정보, 선진적 중 각종기구를 장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압박과 착취를 면하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있다. 이를 도대히 조국과 민족의 경제를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역사적 장전이다.

장정호 <우리농민지킴이 법민운동본부 조직국장>

UR과 농정 (본론) -UR 대응 배경

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농업정책과 농업 현실대, 구조개혁 방향 등을 다루었던 'UR과 농정'시리즈는 이번 호를 끝으로 마감된다.

정책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성격이 미약한 산업의 경우와 달리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미약한 대표적 산업인 농업의 경우 해제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비독점 중소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산업 역시 쇠퇴할 것이다.

유통, 금융, 정보, 제조업, 교육, 영화, 기타서비스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독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명분아래 자본의 이윤확대

제3세계 국가 희생 추구

그 귀책지점은 제3세계국가로 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국가는 선진 자본주의제국에 비해 자본주의 발전정도가 저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역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던 각종 시장개방 압박이 축소 내지 철폐되면 선진자본주의제국의 다국적 독점자본과 상품, 기술이 그대로 유입되어 민족경제의 자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종속성이 강화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선진자본주의제국은 내부경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과정에 있어서 그 피해를 제3세계국가에 전가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 EC,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제국은 선진자본주의제국과 독점자본의 요구에 군림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끌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은 이러한 강요를 물리칠 수 없다. 사물론 항상 변화·발전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객관적 조건의 압박에 대해 주체적 노력의 대응으로 이를 고정할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민족적 전환기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된 조국마저 종속적인 나라로 만들 수는 없다. 미국 선진자본주의제국과 독점자본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불균형, 정보, 선진적 중 각종기구를 장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압박과 착취를 면하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있다. 이를 도대히 조국과 민족의 경제를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역사적 장전이다.

장정호 <우리농민지킴이 법민운동본부 조직국장>

선진 자본주의국간 이해관계 조정과

쌍무적 시장개방 압력의 전세계적

확장 계기

되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패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대변되는 시기에 미국은 정치군사적 조장대국의 힘과 활동한 산업생산력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은 세계산업 총생산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최대의 산업생산력과 시장규모 및 무역규모를 자랑하였

성의 지위,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는 미국경제의 패권을 뒷받침하던 양대축 가운데 한 축을 붕괴시키게 되었다. 이때문에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갈수록 약화되고 일본과 EC의 상대적 지위는 높아지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미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쌍국적자(무역적자) 재정적

알림

이문경재단에서는 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94년 3월 14일부터 학생순찰대인 '외대사랑 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내의 무질서와 외부인에 의한 폭력·파괴행위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외대사랑 순찰대'에 대하여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내에서의 음주·고성방가하는 행위 금지
2. 각종 폭력·파괴행위 금지
3. 야간에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4. 교정에서 운전연습 및 불법주차 행위 금지
5. 야간에 운동(농구장) 행위 금지
6. 외부인의 야간 출입통제를 위한 학생증 제시를 요구 할 경우 협조

1994. 3.

외 대 사 랑 순 찰 대

신입생 인정검사 결과 배부 및 해석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실시한 인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배부 및 해석을 실시합니다.

결과 배부 : 4월 11일부터~4월 29일 까지

결과 해석 : 4월 11일 부터~4월 29일 까지

해석은 날짜, 시간 약속 후 실시함.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외대인을 위하여 각종 심리검사(적성·인성·자아개념·직업흥미 등)를 실시하고, 자기표현 훈련 집단 및 싸이코드라마 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서울 961-4164 용인 30-4141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 생활상담 연구소

'95 학군사관(R. O. T. C) 후보생 모집

1. 모 집 인 원 : 〇〇명
2. 지 원 자 격
 - 94년도 현재 대학 2학년 재학생
 - 71.1.1~77.3.1 출생자(18세~23세)
 - 장교임명에 결격사유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94.4.1~4.30(화요일)
 - 장 소 : 행정실

· 구비서류 :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
· 지원서 및 서지서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2부
·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21부	· 사진(4X5cm, 컬러) 2매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사진(4X5cm, 컬러) 1매	

4. 선

· 입학 및 대학선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품검사, 품성검사

5. 합

· 합격자 발표 : 94. 12. 8

6. 특

· 대기입학 무시험 선발
· 의무복무기간 : 2년 4개월
· 학업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할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7. 문

· 문의 처 : 학군단 행정실
(961-4411, 961-4412, 962-7124)

제 119학군사관교육단장

□ '한겨레 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창간정신으로 위기 극복을...

87년 항쟁 성과물로 6만 주주가 세운 뜻 퇴색

책임있는 내부수습으로 국민 기대 깨지 말아야

지난 88년 5월 15일 은근한 기세를 안고 출범한 한겨레신문이 창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진된 전 회장에 취임한 주주위원장의 재임무 부여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주주대표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던 한겨레 사태가 종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주총회 무산은 국민들 불신 반영

지난 3월 19일 서울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6기 주주총회의 무산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주주총회는 대표이사회의 불합의로 45%의 참석율을 기록, 상법상 성원 인원인 50%를 넘지 못함에 따라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주주총회가 무산된 것은 창간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주주들의 집단적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주주들의 불신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진된 주주위원장은 주주들의 불신을 반영하여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법정싸움으로 변진 일룩진 한겨레신문

한겨레 사태는 지난해 6월 1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한겨레신문

북한-IAEA 곧 대화 재개

북핵 대화 재개 지속 노력

평화해결 중국 역할 강조

북핵 미-중과 다시 논의 공동보조

한겨레신문의 창간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주주들의 집단적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진된 주주위원장은 주주들의 불신을 반영하여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한겨레 주주모임'이 기관지 때를 때리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권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상인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이 모두 사임, 주주대표들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가치분 신청의 실효가 없어져 임원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청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각자 이유없다며 취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해 3월 3일 경영진주주위원회의 제3차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3월 19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로 김중배 대표이사를 다시 선출해 주주대표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다시 태어나야 할 한겨레

이번 한겨레사태는 임시주주의 위임장 위조여부가 발단이 됐지만 사실은 한겨레 내부의 뿌리깊은 갈등이 그 저변에 깔려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특히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주주총회와 관련, 김중배 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겨레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건, 김중배는 김중배에 대한 감정을 3개월의 정계를 내뿜었다. 또 지난 1월 13일에는 노무현이 김중배 사장을 해임했고, 2월 7일에는 이근우 주주대표가 김중배에 대해 '한겨레 독재주주모임' 소외에 회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해직시키려다 관계자들의 반발로 6개월 정계를 내리기도 했다.

다육이 한겨레내부원구로 퍼져나간 '한겨레 정권'을 통해 회사측의 자정과 개혁을 촉박한 게 요인이다. 해진 김중배에 대해 두 차례의 정계를 가졌다. '한겨레 정권'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인사이드일드'라고 한겨레 내부에 대한 정계를 가졌다. '한겨레 정권'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인사이드일드'라고 한겨레 내부에 대한 정계를 가졌다.

87년 6월 항쟁의 주체성과 성과를 해독하지 못한 주주들이 우익 세력 한겨레신문에서 주주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해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는 게 문제다.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내부의 내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해직자를 회부해 6만 주주와 40만 독자들에게 미안한 말을 하는 것만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잊고 있다.

김동훈 <바를글을 위한 자유기고가 모회 회원>

□ UR협상 현재 진행상황과 이후 일정



국회비준이 거부되면 가트에서 무역당사자국간 재협상을 하라는 권고가 들어오고 미국과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미국과 밀실협약, 농산물 개방 확대

'한 자도 못 고친다' 스스로 반복

UR 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공표하는 지금에도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급속적인 외교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마한 한겨레 신문에서 일수한 자료를 통해 알려진 미국과의 밀실협약은 내용 것 다 내주고 대이상을 내줄 것도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강요하는 폐지고 기, 담고,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등 25개 주요농산물에 대해 부과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농산물의 판매 단위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지난 12월 15일 UR 최종협정서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기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예정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초에야 제출이 끝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UR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추가개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의 수의 30% 정도를 이용한 무역협력을 받는 등 무역협력을 위한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UR협상의 승패를 가를것이다 할 수 있다. 단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지난 12월 15일 UR 최종협정서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기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예정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초에야 제출이 끝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UR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추가개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의 수의 30% 정도를 이용한 무역협력을 받는 등 무역협력을 위한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UR협상의 승패를 가를것이다 할 수 있다. 단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지난 12월 15일 UR 최종협정서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기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예정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초에야 제출이 끝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UR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추가개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의 수의 30% 정도를 이용한 무역협력을 받는 등 무역협력을 위한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UR협상의 승패를 가를것이다 할 수 있다. 단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지난 12월 15일 UR 최종협정서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기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예정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초에야 제출이 끝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UR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추가개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의 수의 30% 정도를 이용한 무역협력을 받는 등 무역협력을 위한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UR협상의 승패를 가를것이다 할 수 있다. 단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지난 12월 15일 UR 최종협정서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기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예정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초에야 제출이 끝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UR협상방어행동계획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추가개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의 수의 30% 정도를 이용한 무역협력을 받는 등 무역협력을 위한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UR협상의 승패를 가를것이다 할 수 있다. 단일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재협상이 대개 된 지금, 국회 비준거부도 재협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UR의 향후 일정속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본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뉴욕대입

이제, 세계금융의 중심부
뉴욕을 사고 싶다!



1년간의 한화외국금융에 발원한 뉴욕 현지법인의 생활 - 회사의 해외진출과 함께 따라 재계약이 자유롭게 하는 한화외국금융의 심원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 이 모든 것을 한화외국금융이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의 금융거래를 통해 우리 영토를 넓히는 것도 도란 도란 돕고 있다. 국내에서의 금융거래에서 일하는 국제화의 참담한 모습은 거대한 야망을 품어본다. 세계금융의 심장부 뉴욕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면, 그리고 인연은 이 뉴욕을 사고 말라...

보통에서 국제금융사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 국내에서의 금융거래에서 금융개발의 물결에 담담히 서서 2147억의 국제금융자산으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조영석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노랫말과 가락의 절묘한 상승작용

노래비평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 것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노래비평은 음악비평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래비평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주로 음악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다. 또 잡지 등에서 볼 수 있는 노래평은 그야말로 간단한 인상 정도에 불과해서 노래비평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노래비평은 어떤 노래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좋다면 왜 좋은지 나쁘다면 왜 나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노래비평을 위해서는 일단 노래는 노래라는 문학적 요소와 가락이라는 음악적 요소가 통일적으로 결합된 매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를 다 이해해야 한 노래를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주로 그 악곡에 대한 분석만 할 뿐이지 반대로 노랫말만 다룬다면 노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노랫말과 악곡을 각각 살펴볼 때는 다음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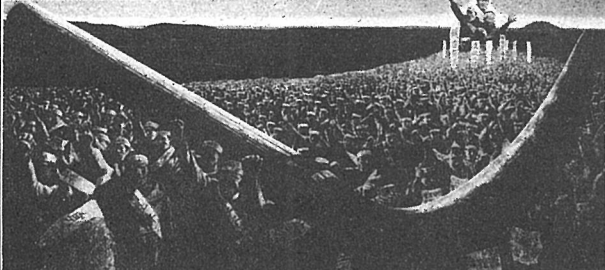
노랫말과 가락의 상승작용을 다 살펴보고 이 둘이 만나면서 어떤 노래를 주는가 본다. 어떤 노래의 경우 따로 살펴보면 선율이 좋고 가락이 좋지만 둘이 만나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그 말이 학생 중이 많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중인지, 젊은 세대의 말인지 조금 나이는 사람들이 쓰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그 노랫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비평

<1> 대중매체
 <2> 만화
 <3> TV
 <4> 노래
 <5> 영화

지 않아도 될 노랫말이 붙어 있다면 지는 경우도 있다. 처음 만났던 것처럼 노래는 이 양자의 통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요소가 어떻게 어울려서 서로를 상승시켜 감동을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상선 발화 -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전시회



이종구 '들의 역사 - 백산으로 부터' 300x145 점지위에 아크릴, 1994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전시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30일 (수)부터 막을 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시회'는 그와 함께 시하는 바가 크다. 세다란 격언을 하는 미술인 1백2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시로써, 지난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간차원의 최초 '역사주제 전시회'라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시회는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을 위해 새로이 창작한 작품들로 꾸민 주제전과 당시 동학운동의 숨겨진 재발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관련 문헌, 출판물, 사진 등을 제시하는 자료전의 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소리 말글살이

쿠하하하! 내 거는 아깝잖아!

그. 도저히 답할 수 없다. (아름답다)

"네가 바둑을 잘 둔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아깝잖아" 나. 아름답게 할 수 없게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남에서 제정하이는 성음이 아버지와 전쟁시기에 한전호에서 싸운 옛 전우였다. 성음이는 어려서부터 제정하이를 삼촌처럼 따랐고 때로는 애를 먹이기도 하고 아깝잖아! 때를 쓰기도 했다.

—소설 나의 동무들중—
 <통일당이 칠천만 거역모임>

문화 응답

민중노래 연합공연 다시서는 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불렀던 우리 시대 민중의 노래가

세종문화회관에 올라간다.

민중노래 15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리고 현재에도 대중에게 의미 있는 곡들이 올라지는 것이다.

김영남, 최다정, 노태마, 안지환, 김광석, 등과 '민중의 바리톤' 오현정,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연, 명창 안숙선씨 등이 함께 영상, 풍물, 춤, 극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가 결합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매: 4월 17일 (수) 7시, 9시, 11시
 10월 (일) 7시, 9시, 11시, 13시, 15시, 17시, 19시, 21시, 23시
 19시, 21시, 23시, 25시, 27시, 29시, 31시, 33시, 35시, 37시, 39시, 41시, 43시, 45시, 47시, 49시, 51시, 53시, 55시, 57시, 59시, 61시, 63시, 65시, 67시, 69시, 71시, 73시, 75시, 77시, 79시, 81시, 83시, 85시, 87시, 89시, 91시, 93시, 95시, 97시, 99시, 101시, 103시, 105시, 107시, 109시, 111시, 113시, 115시, 117시, 119시, 121시, 123시, 125시, 127시, 129시, 131시, 133시, 135시, 137시, 139시, 141시, 143시, 145시, 147시, 149시, 151시, 153시, 155시, 157시, 159시, 161시, 163시, 165시, 167시, 169시, 171시, 173시, 175시, 177시, 179시, 181시, 183시, 185시, 187시, 189시, 191시, 193시, 195시, 197시, 199시, 201시, 203시, 205시, 207시, 209시, 211시, 213시, 215시, 217시, 219시, 221시, 223시, 225시, 227시, 229시, 231시, 233시, 235시, 237시, 239시, 241시, 243시, 245시, 247시, 249시, 251시, 253시, 255시, 257시, 259시, 261시, 263시, 265시, 267시, 269시, 271시, 273시, 275시, 277시, 279시, 281시, 283시, 285시, 287시, 289시, 291시, 293시, 295시, 297시, 299시, 301시, 303시, 305시, 307시, 309시, 311시, 313시, 315시, 317시, 319시, 321시, 323시, 325시, 327시, 329시, 331시, 333시, 335시, 337시, 339시, 341시, 343시, 345시, 347시, 349시, 351시, 353시, 355시, 357시, 359시, 361시, 363시, 365시, 367시, 369시, 371시, 373시, 375시, 377시, 379시, 381시, 383시, 385시, 387시, 389시, 391시, 393시, 395시, 397시, 399시, 401시, 403시, 405시, 407시, 409시, 411시, 413시, 415시, 417시, 419시, 421시, 423시, 425시, 427시, 429시, 431시, 433시, 435시, 437시, 439시, 441시, 443시, 445시, 447시, 449시, 451시, 453시, 455시, 457시, 459시, 461시, 463시, 465시, 467시, 469시, 471시, 473시, 475시, 477시, 479시, 481시, 483시, 485시, 487시, 489시, 491시, 493시, 495시, 497시, 499시, 501시, 503시, 505시, 507시, 509시, 511시, 513시, 515시, 517시, 519시, 521시, 523시, 525시, 527시, 529시, 531시, 533시, 535시, 537시, 539시, 541시, 543시, 545시, 547시, 549시, 551시, 553시, 555시, 557시, 559시, 561시, 563시, 565시, 567시, 569시, 571시, 573시, 575시, 577시, 579시, 581시, 583시, 585시, 587시, 589시, 591시, 593시, 595시, 597시, 599시, 601시, 603시, 605시, 607시, 609시, 611시, 613시, 615시, 617시, 619시, 621시, 623시, 625시, 627시, 629시, 631시, 633시, 635시, 637시, 639시, 641시, 643시, 645시, 647시, 649시, 651시, 653시, 655시, 657시, 659시, 661시, 663시, 665시, 667시, 669시, 671시, 673시, 675시, 677시, 679시, 681시, 683시, 685시, 687시, 689시, 691시, 693시, 695시, 697시, 699시, 701시, 703시, 705시, 707시, 709시, 711시, 713시, 715시, 717시, 719시, 721시, 723시, 725시, 727시, 729시, 731시, 733시, 735시, 737시, 739시, 741시, 743시, 745시, 747시, 749시, 751시, 753시, 755시, 757시, 759시, 761시, 763시, 765시, 767시, 769시, 771시, 773시, 775시, 777시, 779시, 781시, 783시, 785시, 787시, 789시, 791시, 793시, 795시, 797시, 799시, 801시, 803시, 805시, 807시, 809시, 811시, 813시, 815시, 817시, 819시, 821시, 823시, 825시, 827시, 829시, 831시, 833시, 835시, 837시, 839시, 841시, 843시, 845시, 847시, 849시, 851시, 853시, 855시, 857시, 859시, 861시, 863시, 865시, 867시, 869시, 871시, 873시, 875시, 877시, 879시, 881시, 883시, 885시, 887시, 889시, 891시, 893시, 895시, 897시, 899시, 901시, 903시, 905시, 907시, 909시, 911시, 913시, 915시, 917시, 919시, 921시, 923시, 925시, 927시, 929시, 931시, 933시, 935시, 937시, 939시, 941시, 943시, 945시, 947시, 949시, 951시, 953시, 955시, 957시, 959시, 961시, 963시, 965시, 967시, 969시, 971시, 973시, 975시, 977시, 979시, 981시, 983시, 985시, 987시, 989시, 991시, 993시, 995시, 997시, 999시, 1001시, 1003시, 1005시, 1007시, 1009시, 1011시, 1013시, 1015시, 1017시, 1019시, 1021시, 1023시, 1025시, 1027시, 1029시, 1031시, 1033시, 1035시, 1037시, 1039시, 1041시, 1043시, 1045시, 1047시, 1049시, 1051시, 1053시, 1055시, 1057시, 1059시, 1061시, 1063시, 1065시, 1067시, 1069시, 1071시, 1073시, 1075시, 1077시, 1079시, 1081시, 1083시, 1085시, 1087시, 1089시, 1091시, 1093시, 1095시, 1097시, 1099시, 1101시, 1103시, 1105시, 1107시, 1109시, 1111시, 1113시, 1115시, 1117시, 1119시, 1121시, 1123시, 1125시, 1127시, 1129시, 1131시, 1133시, 1135시, 1137시, 1139시, 1141시, 1143시, 1145시, 1147시, 1149시, 1151시, 1153시, 1155시, 1157시, 1159시, 1161시, 1163시, 1165시, 1167시, 1169시, 1171시, 1173시, 1175시, 1177시, 1179시, 1181시, 1183시, 1185시, 1187시, 1189시, 1191시, 1193시, 1195시, 1197시, 1199시, 1201시, 1203시, 1205시, 1207시, 1209시, 1211시, 1213시, 1215시, 1217시, 1219시, 1221시, 1223시, 1225시, 1227시, 1229시, 1231시, 1233시, 1235시, 1237시, 1239시, 1241시, 1243시, 1245시, 1247시, 1249시, 1251시, 1253시, 1255시, 1257시, 1259시, 1261시, 1263시, 1265시, 1267시, 1269시, 1271시, 1273시, 1275시, 1277시, 1279시, 1281시, 1283시, 1285시, 1287시, 1289시, 1291시, 1293시, 1295시, 1297시, 1299시, 1301시, 1303시, 1305시, 1307시, 1309시, 1311시, 1313시, 1315시, 1317시, 1319시, 1321시, 1323시, 1325시, 1327시, 1329시, 1331시, 1333시, 1335시, 1337시, 1339시, 1341시, 1343시, 1345시, 1347시, 1349시, 1351시, 1353시, 1355시, 1357시, 1359시, 1361시, 1363시, 1365시, 1367시, 1369시, 1371시, 1373시, 1375시, 1377시, 1379시, 1381시, 1383시, 1385시, 1387시, 1389시, 1391시, 1393시, 1395시, 1397시, 1399시, 1401시, 1403시, 1405시, 1407시, 1409시, 1411시, 1413시, 1415시, 1417시, 1419시, 1421시, 1423시, 1425시, 1427시, 1429시, 1431시, 1433시, 1435시, 1437시, 1439시, 1441시, 1443시, 1445시, 1447시, 1449시, 1451시, 1453시, 1455시, 1457시, 1459시, 1461시, 1463시, 1465시, 1467시, 1469시, 1471시, 1473시, 1475시, 1477시, 1479시, 1481시, 1483시, 1485시, 1487시, 1489시, 1491시, 1493시, 1495시, 1497시, 1499시, 1501시, 1503시, 1505시, 1507시, 1509시, 1511시, 1513시, 1515시, 1517시, 1519시, 1521시, 1523시, 1525시, 1527시, 1529시, 1531시, 1533시, 1535시, 1537시, 1539시, 1541시, 1543시, 1545시, 1547시, 1549시, 1551시, 1553시, 1555시, 1557시, 1559시, 1561시, 1563시, 1565시, 1567시, 1569시, 1571시, 1573시, 1575시, 1577시, 1579시, 1581시, 1583시, 1585시, 1587시, 1589시, 1591시, 1593시, 1595시, 1597시, 1599시, 1601시, 1603시, 1605시, 1607시, 1609시, 1611시, 1613시, 1615시, 1617시, 1619시, 1621시, 1623시, 1625시, 1627시, 1629시, 1631시, 1633시, 1635시, 1637시, 1639시, 1641시, 1643시, 1645시, 1647시, 1649시, 1651시, 1653시, 1655시, 1657시, 1659시, 1661시, 1663시, 1665시, 1667시, 1669시, 1671시, 1673시, 1675시, 1677시, 1679시, 1681시, 1683시, 1685시, 1687시, 1689시, 1691시, 1693시, 1695시, 1697시, 1699시, 1701시, 1703시, 1705시, 1707시, 1709시, 1711시, 1713시, 1715시, 1717시, 1719시, 1721시, 1723시, 1725시, 1727시, 1729시, 1731시, 1733시, 1735시, 1737시, 1739시, 1741시, 1743시, 1745시, 1747시, 1749시, 1751시, 1753시, 1755시, 1757시, 1759시, 1761시, 1763시, 1765시, 1767시, 1769시, 1771시, 1773시, 1775시, 1777시, 1779시, 1781시, 1783시, 1785시, 1787시, 1789시, 1791시, 1793시, 1795시, 1797시, 1799시, 1801시, 1803시, 1805시, 1807시, 1809시, 1811시, 1813시, 1815시, 1817시, 1819시, 1821시, 1823시, 1825시, 1827시, 1829시, 1831시, 1833시, 1835시, 1837시, 1839시, 1841시, 1843시, 1845시, 1847시, 1849시, 1851시, 1853시, 1855시, 1857시, 1859시, 1861시, 1863시, 1865시, 1867시, 1869시, 1871시, 1873시, 1875시, 1877시, 1879시, 1881시, 1883시, 1885시, 1887시, 1889시, 1891시, 1893시, 1895시, 1897시, 1899시, 1901시, 1903시, 1905시, 1907시, 1909시, 1911시, 1913시, 1915시, 1917시, 1919시, 1921시, 1923시, 1925시, 1927시, 1929시, 1931시, 1933시, 1935시, 1937시, 1939시, 1941시, 1943시, 1945시, 1947시, 1949시, 1951시, 1953시, 1955시, 1957시, 1959시, 1961시, 1963시, 1965시, 1967시, 1969시, 1971시, 1973시, 1975시, 1977시, 1979시, 1981시, 1983시, 1985시, 1987시, 1989시, 1991시, 1993시, 1995시, 1997시, 1999시, 2001시, 2003시, 2005시, 2007시, 2009시, 2011시, 2013시, 2015시, 2017시, 2019시, 2021시, 2023시, 2025시, 2027시, 2029시, 2031시, 2033시, 2035시, 2037시, 2039시, 2041시, 2043시, 2045시, 2047시, 2049시, 2051시, 2053시, 2055시, 2057시, 2059시, 2061시, 2063시, 2065시, 2067시, 2069시, 2071시, 2073시, 2075시, 2077시, 2079시, 2081시, 2083시, 2085시, 2087시, 2089시, 2091시, 2093시, 2095시, 2097시, 2099시, 2101시, 2103시, 2105시, 2107시, 2109시, 2111시, 2113시, 2115시, 2117시, 2119시, 2121시, 2123시, 2125시, 2127시, 2129시, 2131시, 2133시, 2135시, 2137시, 2139시, 2141시, 2143시, 2145시, 2147시, 2149시, 2151시, 2153시, 2155시, 2157시, 2159시, 2161시, 2163시, 2165시, 2167시, 2169시, 2171시, 2173시, 2175시, 2177시, 2179시, 2181시, 2183시, 2185시, 2187시, 2189시, 2191시, 2193시, 2195시, 2197시, 2199시, 2201시, 2203시, 2205시, 2207시, 2209시, 2211시, 2213시, 2215시, 2217시, 2219시, 2221시, 2223시, 2225시, 2227시, 2229시, 2231시, 2233시, 2235시, 2237시, 2239시, 2241시, 2243시, 2245시, 2247시, 2249시, 2251시, 2253시, 2255시, 2257시, 2259시, 2261시, 2263시, 2265시, 2267시, 2269시, 2271시, 2273시, 2275시, 2277시, 2279시, 2281시, 2283시, 2285시, 2287시, 2289시, 2291시, 2293시, 2295시, 2297시, 2299시, 2301시, 2303시, 2305시, 2307시, 2309시, 2311시, 2313시, 2315시, 2317시, 2319시, 2321시, 2323시, 2325시, 2327시, 2329시, 2331시, 2333시, 2335시, 2337시, 2339시, 2341시, 2343시, 2345시, 2347시, 2349시, 2351시, 2353시, 2355시, 2357시, 2359시, 2361시, 2363시, 2365시, 2367시, 2369시, 2371시, 2373시, 2375시, 2377시, 2379시, 2381시, 2383시, 2385시, 2387시, 2389시, 2391시, 2393시, 2395시, 2397시, 2399시, 2401시, 2403시, 2405시, 2407시, 2409시, 2411시, 2413시, 2415시, 2417시, 2419시, 2421시, 2423시, 2425시, 2427시, 2429시, 2431시, 2433시, 2435시, 2437시, 2439시, 2441시, 2443시, 2445시, 2447시, 2449시, 2451시, 2453시, 2455시, 2457시, 2459시, 2461시, 2463시, 2465시, 2467시, 2469시, 2471시, 2473시, 2475시, 2477시, 2479시, 2481시, 2483시, 2485시, 2487시, 2489시, 2491시, 2493시, 2495시, 2497시, 2499시, 2501시, 2503시, 2505시, 2507시, 2509시, 2511시, 2513시, 2515시, 2517시, 2519시, 2521시, 2523시, 2525시, 2527시, 2529시, 2531시, 2533시, 2535시, 2537시, 2539시, 2541시, 2543시, 2545시, 2547시, 2549시, 2551시, 2553시, 2555시, 2557시, 2559시, 2561시, 2563시, 2565시, 2567시, 2569시, 2571시, 2573시, 2575시, 2577시, 2579시, 2581시, 2583시, 2585시, 2587시, 2589시, 2591시, 2593시, 2595시, 2597시, 2599시, 2601시, 2603시, 2605시, 2607시, 2609시, 2611시, 2613시, 2615시, 2617시, 2619시, 2621시, 2623시, 2625시, 2627시, 2629시, 2631시, 2633시, 2635시, 2637시, 2639시, 2641시, 2643시, 2645시, 2647시, 2649시, 2651시, 2653시, 2655시, 2657시, 2659시, 2661시, 2663시, 2665시, 2667시, 2669시, 2671시, 2673시, 2675시, 2677시, 2679시, 2681시, 2683시, 2685시, 2687시, 2689시, 2691시, 2693시, 2695시, 2697시, 2699시, 2701시, 2703시, 2705시, 2707시, 2709시, 2711시, 2713시, 2715시, 2717시, 2719시, 2721시, 2723시, 2725시, 2727시, 2729시, 2731시, 2733시, 2735시, 2737시, 2739시, 2741시, 2743시, 2745시, 2747시, 2749시, 2751시, 2753시, 2755시, 2757시, 2759시, 2761시, 2763시, 2765시, 2767시, 2769시, 2771시, 2773시, 2775시, 2777시, 2779시, 2781시, 2783시, 2785시, 2787시, 2789시, 2791시, 2793시, 2795시, 2797시, 2799시, 2801시, 2803시, 2805시, 2807시, 2809시, 2811시, 2813시, 2815시, 2817시, 2819시, 2821시, 2823시, 2825시, 2827시, 2829시, 2831시, 2833시, 2835시, 2837시, 2839시, 2841시, 2843시, 2845시, 2847시, 2849시, 2851시, 2853시, 2855시, 2857시, 2859시, 2861시, 2863시, 2865시, 2867시, 2869시, 2871시, 2873시, 2875시, 2877시, 2879시, 2881시, 2883시, 2885시, 2887시, 2889시, 2891시, 2893시, 2895시, 2897시, 2899시, 2901시, 2903시, 2905시, 2907시, 2909시, 2911시, 2913시, 2915시, 2917시, 2919시, 2921시, 2923시, 2925시, 2927시, 2929시, 2931시, 2933시, 2935시, 2937시, 2939시, 2941시, 2943시, 2945시, 2947시, 2949시, 2951시, 2953시, 2955시, 2957시, 2959시, 2961시, 2963시, 2965시, 2967시, 2969시, 2971시, 2973시, 2975시, 2977시, 2979시, 2981시, 2983시, 2985시, 2987시, 2989시, 2991시, 2993시, 2995시, 2997시, 2999시, 3001시, 3003시, 3005시, 3007시, 3009시, 3011시, 3013시, 3015시, 3017시, 3019시, 3021시, 3023시, 3025시, 3027시, 3029시, 3031시, 3033시, 3035시, 3037시, 3039시, 3041시, 3043시, 3045시, 3047시, 3049시, 3051시, 3053시, 3055시, 3057시, 3059시, 3061시, 3063시, 3065시, 3067시, 3069시, 3071시, 3073시, 3075시, 3077시, 3079시, 3081시, 3083시, 3085시, 3087시, 3089시, 3091시, 3093시, 3095시, 3097시, 3099시, 3101시, 3103시, 3105시, 3107시, 3109시, 3111시, 3113시, 3115시, 3117시, 3119시, 3121시, 3123시, 3125시, 3127시, 3129시, 3131시, 3133시, 3135시, 3137시, 3139시, 3141시, 3143시, 3145시, 3147시, 3149시, 3151시, 3153시, 315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모현생활

대학촌 없는 대학



한양대 안산 캠퍼스의 경우 후생복지관이 있어 목욕탕, 음악감상실, 매점등의 시설이 있고,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경우 학교의 지원과 외부 자본의 투자를 통해 임대 자치촌이 학교앞에 형성돼 있다.

부당한 방값 징수방법 때문에 학생들 피해 서점, 목욕탕, 병원등 없어 후생복지관 절실

본교 용인캠퍼스의 경우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에 의해 지방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싼 방값과 식비문제는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한해 모현에는 기숙사생 7백여명을 포함해 1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학촌형성은 개교 1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학교앞에 서점이나 편의점도 없는 현실을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최근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몇 년전 방값이 2배 가까이 올랐던 것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증대된 것이 사실이나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거의 향상된게 없다는 것이 자취생들의 한 목소리다.

학교입구 주위에 최근 지역인 다세대주택에서 자취할 경우 한달에 14만원의 기준으로 한학기 4개월분인 56만원을 선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6월초부터 기숙사생을 미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상 20여만원의 방세를 공짜로 내는 셈이 되고 있다.

또한 전기비, 수도세방값으로 따로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한학기 2인이 거주할때는 4개월에 16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모현에서 자취방의 대부분이 이 전으로 담장을 통해 돈을 받고 있어 학생들은 불거지게 부당한 방세를 내고 있다.

학숙의 경우에는 침실을 지비로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한달에 평균 30만원의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비싼 이 문준수(평균 34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본교 용인캠퍼스의 방값이 한 학기여섯 오지에 달할때도 비싸다. 이는 경기도 지역에 비추어 위중한 한양대(안산), 경희대(기흥), 명지대(용인) 등이 유사한 시가지 주변에 위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학당국의 '대학입학 정원 확대'에만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과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도를 하지 않은 책임 또한 크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경우에는 학교의 지원과 외부자본의 투자를 통해 '임대자치촌'이 학교 앞에 형성돼 있다.

이부분과 함께 기숙사 증축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해 모현학사에는 7백24명(남 4백48명, 여 2백76명)의 수용시설이 갖추어져 14%의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으나, 지방학생들과 먼거리 통학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협소한 실정이다.

기숙사의 증축을 위해서 5백평 수용기준을 기존(2천평 규모)으로 40여여원인 소규모의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위해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모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비싼 식량문제로 학생들의 적적한 생활을 주고 있다고 한다. 모현에 있는 식당의 메뉴와 배 반값이 3천원을 웃돌았는데 이는 서울캠퍼스 근처 식당의 평균 2천원에 비해 50%정도 비싸다.

또 면담위로 구성된 요식업조합은 합의에 의해 가격을 폭락이 올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한식당은 압박을 통해 가격을 올리게끔 한다고 한다.

며칠전에는 가격이 약간 싸게 책정된 '텐데나'로 불리는 식당을 요식업 조합원들이 찾아와 가격을 내릴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학교앞에 있는 식당들로서 가

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모현면 요식업조합의 총무를 맡고 있는 모현복집 대표 이상오씨는 "사실 술을 전문으로 팔지 않는 식당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거의 없다. 또한 방학때면 모두 가버리면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모현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영식 군(서하·유고여3)은 "토·일요일에 모현에 남아있는 학생들이들 부득이하게 기숙사 식당에서 음식까지 못팔경우 주말동안 혼자서 밥값만 2만원이상을 써야한다"라고 말한다.

비싼 방값, 식비 이외에도 목욕탕, 극장등 위락시설과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고 병원, 은행마저 없는 환경은 학생들의 불편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한양대 안산캠퍼스의 경우 후생복지관이 있어 복지관내에 독서실, 음악감상실, 목욕탕, 식당, 매점, 다목적실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교당국의 무관심속에 계속되고 있는 모현생활문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총학생회측은 "대학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지역에서 모현주변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힘든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동학군주행사의 10대 요구안에 모현 학교간의 서클버스운행과 기숙사증축문제를 포함해서 대학총합성취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현생활문제는 학교, 학생·주인간의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신동원 기자>

금요일 3. 4교시 서울 캠퍼스 모교 수의 강의시간 교수는 꽤 어려운 질문을 내어놓는 학생들에게 한다. 그러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명쾌한 답을 말한다. "자네, 어떻게 그 답을 알았지?" 학생이 대답한다. "지난 학기에 교수님의 다른 과목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결국 강의제에서 있는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다.

다른 강의실의 상황도 그리 좋지않은 모습. "뽕이 되었는데도 모를 놈은 강의록을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교수님을 보면 대학교육이 발전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

를 듣기 위해 기다리면서 토로하는 어느 학생의 말이다.

강의내용은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도 제기된다. 모

교수는 "강단에 서서 마치 원맨쇼를 하듯 혼자 두시간 동안 떠돌고 나면 허무하다. 이게 무슨 대학교육이냐"고 하면서도 그 자신도 그 틀을 벗어나는 강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교수님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강의가 '기초'라는 쪽과 나머지 '특고'라는 쪽으로 나뉘는 것이다. 한두번 새롭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사립이나 대학의 경쟁력(사양·영어)에 따라 신입생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 중의 하나이며 율해도 예외는 아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이 수학적 지식을 강요한 것이었기에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의 수업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강의시간을 통해 삶을 고민하고 사회를 고민하는 것이 왜야 함에도 '지식의 전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교수들의 미비한 연구활동을 지적한다.

대학들은 교수법과 그에 걸맞는 내용에 잘 갖춰진 캠퍼스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모 대이지만 '외대제일주의'가 결코 부끄러워 않은 슬로건이 된 것이다.

<이국철 기자>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국 재개발 지역에서 포크레인과 경찰, 철거 광대에 의한 강제 철거가 계속되고 있다.

□'94 전국 철거민 생존권 결의대회

"엄마 오늘은 어디서 자요"

한낱의 한강변, 여의도광장에는 한가로운 봄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이런 여유있는 모습 한편에는 허름한 옷차림에 가슴에 띠를 두른 아주머니들, '생존권'을 확보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 또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한 사람을 철거민, '시달'이라 단어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토) 오후 1시에 열린 '94강제철거 저지를 위한 전국철거민 생존권 결의대회'에 생명을 걸고 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였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할머니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간 '철거민'이라는 생활적인 요

인때문에 각 지역별로 따로 활동해 왔던 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전국철거민 협의회'(이하 전철협)와 '서울지역철거민 협의회'(이하 서울철거민 협회)를 앞두어 열린 결의대회였다. 전철협 공동대표 남강남씨는 "철거민부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니므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실업률의 증가를 막기위해 철거민을 철거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철거민이 풀릴 때까지 생존권을 쟁취할 시달'이라 단어를 만들었다.

이처럼 전철협한편의 의도를 생존권쟁이 아닌 농민, 빈민, 노동자, 노점상 등 모든 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공동의 강령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농민협회는 "우리 노동자 형제들은 철거민 동지들과 단결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강경정권 타도 투쟁을 힘차게 벌여 가겠습니다"라

며 재야 각 단체의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대외행사 중에도 철거민들은 피켓을 서로 흔들었다. 야단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술에 동태가 99만원의 학교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버는걸로 전철협이 하는 것이야 제쳐놓고라도 주민들의 전철이 아니라 저나이가 되도 못...라며 전철이전지, 우편물 배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 생활복지의 열악함을 토로한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집촌에는 취학 전학기에 들어서도 학교를 찾기는 아이들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손자셋을 따르다도 전철집에 딸기나 손수거장도 못한다고 한다.

식방향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철협은 농민단체, 노동계, 동교 연대하여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앞의 투쟁을 펼칠지키 나가기로 했다. 또 철거민 투쟁의 포커스에 끌려 오른다 더러가 불구가 된 인사화(신내동) 세 사간, 사촌시, 공동동의 사해발표회를 가졌다. 전철협은 인천의 사촌시 철거민의 수해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각종 집회, 행장을 통한 선전전과 서명운동과 편지전 등을 벌였다.

전국철거민 대회 폐회식을 가지고 있을 때 대회장 곳곳에서는 전경과 백골단부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회를 마치고 국회외로 나가서 시가행진을 벌이며 재개발된 임업추진위원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하러 왔으나 계획은 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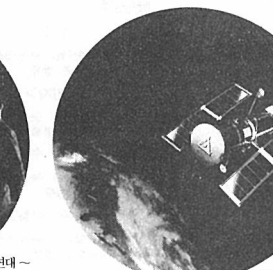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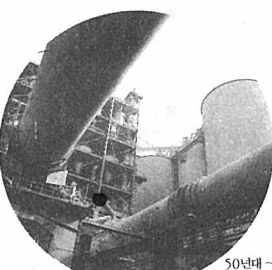
서울에는 집합하다 날이 풀려 3~4월이 되면 전국 재개발 지역에 전 포크레인과 경찰, 철거광대가 총 동원되어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 전경, 백골단은 지리각과도, 전철장에도 보인 자가 만다다는 신원철거지에서의 집합을 할아니(문호)의 이야기다. 이번이 건지기에 내몰리게 됐으니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게, 내 자식도 철거장(문호)한테 맞아 병원입대 지고 있어. 나도 그후론 오만 사신이 수시30명 정상이야."

신원철거민 1천명 세대중 70%가 재개발을 통한 투쟁목적으로 집을 산 투쟁민들이라 한다. 심지어 한사람이 15세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들까지 거세히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비닐집에서 뒤돌아선 모습을 보고 "엄마! / 오빠는 또 어디에서 자요"라며 울음을 터뜨리며 하는 이 모습은 30년만에 있는 꼴만으로도 비탄하는 다들만큼이나 안타깝게 느껴졌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나 기자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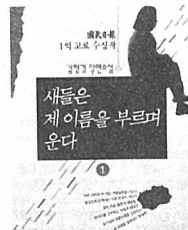
이번 비전이 있길래 나이가 100살 젊어졌나? 80년대는 미래: 미래 살아남는 미래비전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서비스와 상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났고, 80년대는 이끌어온 종합금융산업의 가치를 누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약속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이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동양그룹

□서평

심리묘사로 기술한 방향하는 사람들의 '울음'

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중미술운동을
함께 했던
다섯명의 고뇌와
방향을 그린 소설



이 책의 작가인 김형도는 1960년대 강릉에서 출생하여 강릉여고, 경희대 국문과를 거쳤고 83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된 이후로 중편 '죽음전지', 시집 '모든 길방은 다르다', 소설집 '단풍은 키가 작다' 등을 집필하다가 국민일보에서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라는 작품으로 상을 탄 여정이다.

이 소설은 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 방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고뇌를 내면적인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심리묘사로 이 사회의 실의에 빠진 상황들을 그려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주인공들은 80년대의 봉건적 사회의 상황 속에서 민중미술운동을 함께 했던 다섯 명의 대학생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걷는 길엔 한 파문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

하게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던 최민화와의 자살이었다. 그리고 남은 네명의 사람들은 각자가 이 작품을 진행하는 인물들로서 소용돌이와 같이 휩쓸리는 듯한 의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중 속에서 최민화의 자살은 우리들 자신의 지난 시간 시대상학을 제시하기에 좋은 생각의 본 대목이다. 즉 그녀의 자살은 당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의식과 이념의 상실로 현실의 한계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한다면 다른 삶에 영향을 끼침으로 다른 의미를 창출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 최민화의 자살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점은 남은 네사람의 변화이다.

또 다른 주인공—구은형은 미술교사로서 임시를 위한 교육방향으로 인해 고민하던 모습을 보인던 중 민화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독백으로 그의 갈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지식인의 모습을
각자의 시각으로
그려

“우리에게 버거운 것은 어찌 무거운
이데올로기나 눈부시게 먼 이상이 아
니다. 불합리하고 절박거리는 현실도
아니다. 그것은 얼마나 명확한가. 우
리가 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젊음일 것이다. 사람이
자족한 인간에 있어 한 치도 눈앞이 보
이지 않는 젊음.”

그의 이러한 말들에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뇌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속의 주인공처럼, 김시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인도로 가는데 그러한 것은 현실의 도피나 환상이 아니라라고 말한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현실을 넘어가거나,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건너지거나 하는 두가지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진은혜, 그녀는 미술잡지의 기자로서
의 길을 간다. 현실에 충실하다 민
화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지만 현실적
인 자세를 견지한다. 아니 어쩌면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 몸을 실은 것
같이 떠도는 인물처럼 보인다.

형조라는 인물은 만사를 진지한 눈
으로 바라본다. 그는 최민화가 자살할
때 곁에 있었다. 그는 최민화의 자살
을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전시회를 연
다. 그리고 그 전시회가 마지막 전시
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한다. 그는
민화의 죽음에 대해서 민화의 특장이
패배했음을 느낀다. 그가 민화의 죽음
에서 배운 것은 삶은 승산이나 타성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정신적 충격
으로 방향하며 화가가 아닌 다른 일들
을 한다. 그러나 공작에서의 자의식
분출은 시대의 벽에 굴복하고 벽화를 그
리게 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는 경계에 있어서 체포되고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이러한 일련
사건들을 겪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품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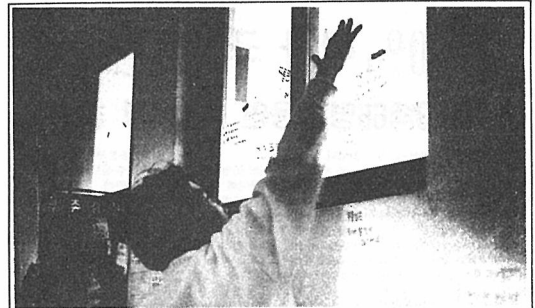
이런 네 사람은 작중 속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기술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향
기를 발산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삶에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치열한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최민화
의 죽음은 그들의 삶에 각자를 부여했
다.

최 병 진
〈해의문화반〉

휴 식

우리는 지금도 험하게 각자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험하게 달려간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휴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휴식 후 다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도 마찬가지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기계의 경력을 나타내듯 이끼가 끼고 녹이슨 기계일지라도 닦고 조이면 휴식의 끝이 나고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아마도 영원한 휴식이란 없는 것 같다. 다만 다음을 기억하기 위한 잠깐의 이별이 있을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내일을 기억하며 휴식을 취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김 도 중
〈사회·경제2〉



부총장님 요것 좀 봐 주세요

학생들이 지난 31일 (목) 용인캠퍼스 부총장실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건부〉

□시

死 · 3

마파람	원바람에	색은냄새	풍기우머
왜구에	몽고놈에	불란서도	벽차건만
충돌같은	조정에선	세금내라	졸라대고
목민관을	보낸것이	목마관만	보냈으니
탐라국의	백성들은	말보다도	못터나
변방에서	소외된 삶	하루이틀	일이더나
미군정은	입도하여	천일파를	등용하니
갈군다고	일어섰다	머리통만	박살났네
일자무식	춘부들을	빨갱이로	몰아대고
서북청년	들이미니	알고본즉	미친꼴세
젊은남자	잡아치고	젊은처녀	검강하니
외세배격	생한것은	이타인가	저타인가
지렁이도	뱀으면은	품들됐다	않다더나
죽창들고	일어서니	총창들고	진입일세
흑백논리	가론탓에	주검들만	늘어났지
사람나고	사상났지	사상나고	사람났다
큰아버지	젊은넋은	누가있어	달려주며
외하르방	생면부지	뉘타으로	돌릴꺼나
피에절은	한라산만	숨막히게	푸르구나

김 충 도
〈법·법학2〉

갑오농민 백년 한이 갑술에 흐른다

갑오농민전쟁, 1백년, 갑술...

암울했던 조선 현대사의 아픔이 백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의 한이 1백년을 흘러 갑술년 제2의 독립전쟁으로 터졌습니.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선조는 거레의 미래를 위해 무지랭이 손에 낫과 호미, 곡괭이를 들고 싸웠습니다. 죽창으로 숲을 이루이 싸웠습니다.

선진문명의 외피를 쓰고 들어왔던 외양선이 이제 UR을 타고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1백년전부터 조선을 불태웠던 '국제화'를 들어밀며 외세에 빌붙은 위정자를 앞세우고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흰옷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조국의 운명과 함께 하려는 열혈 청년들이여, 조국의 부름에 답하십시오. 조국은 청년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쌀·기초농산물'을 지키는 일은 민족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입개방 반대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